

볼리비아, 천연가스 수출 “급증”

1/4분기 브라질·아르헨티나에 15억달러 수출 ... 광구개발 박차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2013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남미 대륙에서 베네주엘라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2009년 말 현재 확인 매장량은 9조9400억입방미터에 달한다.

4월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2013년 1/4분기 천연가스 수출액이 14억9920만달러(약 1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YPFB는 2013년 1/4분기 천연가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는 브라질에 9억6380만달러, 아르헨티나에 5억3540만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현재보다 5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천연가스 광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20년까지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50조입방미터로 늘려 내수와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PFB는 천연가스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관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YPFB는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 스페인-아르헨티나 합작 에너지기업 Repsol-YPF, 프랑스 석유 메이저 Total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30>